

손열 발제

## 2-2. Robert Jervis, "Identity and the Cold War"

- 정체성 요인으로 미소 냉전대결의 진화를 설명함.
- 정체성은 내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외부/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기도 함. 정체성과 이익은 상호 구성의 관계에 있음. 일국의 이익은 자기 정체성에 의해 정의되고, 양국간 경합하는 이익의 상호작용이 상호 자기인식에 영향을 줌.

### ■ 미국과 소련의 정체성

- 미소 양국의 경쟁은 정체성의 경쟁임. 여기서 정체성은 삶의 방식, 무엇이 소망스런 삶인가, 를 정의하는 것, 따라서 양국의 냉전은 이를 둘러싼 경합, 사회체제의 경합이라 할 수 있음.
- 미국의 정체성은 민주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보편성을 띠고 있으나 아울러 미국 예외주의(exceptionalism) 성격을 가지고 있음. Hartz 주장처럼 미국은 봉건시대, 부르조아 혁명을 겪지 않은 자유주의.
- 소련의 정체성은 프롤레타리아, 계급갈등, 개인의 변환 등 사회주의의 실험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또한 미국의 경우와 다른 점은 소련의 정체성이 미국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측면이 있다는 점. 미국과 동등한 지위로서 소련의 정체성 열망함.
- 양국간 유사점은 1) 보편주의 추구, 국적성이나 혈통의 특수성, 특정한 전통 등이 아닌 이념에 근거한 정체성이어서 타국으로 확산 가능함; 2) 진보와 근대성을 담지함, 3) 외교정책은 자국의 이념을 반영 즉,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 second image, 4) 정치의 변환 (점진적 진화가 아닌) 추구
- 이러한 유사성은 양국이 장기전/경쟁과 최후의 승리를 희구하게 함.
- 양국간 비대칭성은 1) 소련의 정체성은 top-down, 미국은 bottom-up으로 형성됨. 미국의 지배층은 민주정치체제 속에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당성을 추구했던 반면, 소련은 정당성 결핍의 문제를 안게 되고 따라서 대중 및 타국과의 접촉을 경계하게 됨; 2) 미국은 소련보다 덜 자기의식적, 명확한 이념에 근거한 소련의 정체성 구성에 반해, 미국은 유럽/영국과의 차별화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 3) 미국은 현재의 모습을 정체성으로 구성, 소련은 미래의 약속으로.

### ■ 냉전의 전개

- 가설: 정체성이 안정적일 때 갈등 심화되고, 정체성이 변화의 압력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협조적임.
- 왜 양국은 제3세계에서 격렬히 경쟁하는가? 신현실주의에 따르면 두 초강대국은 내부 자우너의 동원으로 충분히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3세계의 지지를 이끌 필요가 없음 (Waltz); 정체성 요인 중요-> clash of social systems; clash of identity; 양 진영은 '전쟁의 공포'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본원적으로 팽창적이고 위협한 속성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보편성, 대의, 미션 그리고 자국이 역사의 승리자임을 주장. (케네디-호루시츠포 토론)
- 핵심개념은 근대화, 그러나 서로 다른 근대화; 미국은 공산화는 가난과 절망에서 나온 것이

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개발의 솔류션 (Rowtow); 소련은 아시아에서 자생적 사회주의에 커다란 기대. 미국은 과장된 두려움, 소련은 과장된 희망.

- 데탕트의 경우, 미국에게 베트남 패전은 미국의 자존심의 추락,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한 전략임; 소련은 de-Stalinization 과정에서 계급과 계급투쟁의 역할에 대한 완화된 인식, 따라서 정체성의 수정이 이루어짐. 또한 데탕트를 통해서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제3세계 진출 경쟁할 여건이 마련된다는 인식.

- 미국의 보수는 자유의 힘, 확산을 포기하는 행동으로 비판, 카터의 인권외교.

## ■ 냉전의 쇠퇴와 종식

- 소련은 물리력의 상대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진보적 이상을 계속 추구함, 아프간 사태와 미국과 경합.

- 냉전의 종식은 소련의 정체성 전환과 관련됨. 소련은 미국에 패배할 정도의 물리적 쇠퇴 겪지 않았음. 다만 서양과 비교/대조할 때 소련 시스템과 이념에 대한 신념이 동요하게 됨.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 더 이상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

- “신사고”는 기존의 소련의 정체성과 모순됨. 혁명적 행동이 아닌 전통적 세력균형 사고, 안보딜레마 논리에 기초함. 따라서 미소 사회시스템의 차이와 충돌을 주목하지 않음. 계급투쟁이 사상됨으로써 소련의 정체성과 사명이 소멸됨,

- 반면 미국의 정체성은 거의 변화하지 않음. 자신감의 부침은 있었으나 정체성에서의 유연성이 가미되면서 지속. 공산주의 이상 실현의 희망, 계급투쟁 정치가 소멸되면서 더 이상 소련이 미국을 위협하거나 경쟁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갈등 이슈들이 소멸하게 됨. 한 쪽의 정체성 소멸에 따라 냉전이 종식됨.

## 2-3. Richard Cooper, Economic Aspects of the Cold War, 1962-1975.

-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비군사적 수단으로서 경제정책, 국제경제체제 건설 분석에 주목함.

- 공산권의 붕괴는 결국 경제적 취약성이 기인함.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서유럽(특히 서독), 일본과 동아시아 4龍의 눈부신 성장은 “자유세계”의 우월성을 증명해 줌. 냉전의 궁극적 승리자는 일본과 독일(서독)?

- 1960년대 미국의 경제 170% 성장, 그러나 Kim Philby 증언: 역사의 심판은 공산주의의 승리로 귀결될 것. 1970년까지 소련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을 상회.

- 70년대 들면서 뒤쳐지나 당시 소련과 공산권 지도자들은 상대적 쇠퇴를 감지하지 못하였음은 이해할 만함; 1975년에 일부 부문(철강, 시멘트, 석유)에서 미국을 따라잡음.

- 1960년대 미소 양자간 치열한 군사적, 경제적 능력 경쟁을 넘어 세력권 확보 경쟁 전개 (쿠바 공산화 -> 콩고 공산화 -> 베를린 봉쇄 -> 쿠바 미사일 위기 -> 중인 전쟁 -> 인도네시아 쿠데타 -> 시리아의 이스라엘 공습 -> 프라하의 봄 -> 아옌데 선출, 그리고 인도차이나 전쟁.

- 미국은 무역자유화 조치 등 각종 성장정책 추진, 군사비 증강, 고등교육 투자, 과학기술 투자 등.

## ■ 경제 제재

- 공산권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 1) 무역의 경우 공산권 국가들에 MFN (최혜국대우) 제공 없음; 2) 군사물자, 전략물자 금수; 3) 동맹국들의 동참 유도; 4) 특정국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전면 봉쇄(embargo), 쿠바에 대한 부분 봉쇄; 5) 유고, 체코 등에 rewarding. 이런 제재 정책은 전체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임.
- 1960년대 말 데탕트와 함께 제재 완화.

## ■ 동맹국에 대한 경제정책

- 무역 자유화, Kennedy Round
- 대서양 동맹, 영국과 미군의 서독 주둔 유지, 비확산조약 유지 등 위해 무역자유화, 금융위기 방지책 제공.
- 미국 FRB의 단기 스왑, IMF의 장기대부
- 영국의 재정위기 속에서 재독 영국군 (그리고 재독 미군) 주둔 유지 위해 독일이 영국과 미국의 상품을 구매 (독일의 burden sharing)
- 안보정책 전환(데탕트)과 함께 미국의 금태환 정지, 주요국 화폐간 고정환율 붕괴, 변동환율제, 임금/가격 통제정책 추진. 동맹국의 burden sharing.

## ■ 개도국에 대한 정책

- 1970년대 중반까지 미소간 진정한 전쟁터는 제3세계.
- 소련의 막대한 규모의 군사물자 원조, 훈련프로그램, 인력 지원, 금융지원 등에 대항하기 위해 케네디는 다양한 정책을 동원함. Peace Corps, USIA 예산 배증, Food for Peace, AID, Alliance for Progress, 그 결과 소련의 군사물자 지원규모의 배로 확대.
- 국제제도 건축: UNCTAD, GSP 등.
- 미국이 월남전의 수렁 속에서 인플레이, 산업생산력의 상대적 쇠퇴 속에서 BWS를 깨고 이에 따라 서장 선진국들이 환율변동에 적응하며 석유위기 등으로 stagflation을 겪자 자본주의의 위기론이 등장, 상대적으로 공산권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공산권 내부에서 공산주의의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던 시기가 1970년대. 그러나, 공산주의의 경직성, 혁신능력 부재로 급격한 쇠퇴, 결국 체제경쟁의 열쇠는 자본주의의 혁신능력에 있음.